



말해봅시다는 경제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개강과 함께 찾아온 '학안대' 구성원의 자율적 학원 운영 절실

작년 6.3외대 사건이후에 가속화 되어 학원 탄압의 일환으로 태어났던 학원 안정화 대책이 겨울 방학을 지나면서 진지 겨울 잡에서 꺼내어 개구리처럼 다시금 고개를 들고 활기를 찾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계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신문사에 대한 학교측의 탄압으로 정간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정지, 총학생회 간부들을 총장이 인정한 등록 하는 제도, 방학 동안에 진행되었던 등록금 협상에 대하여 화우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내린 징계조치등으로 이같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유행 무분별한 도입 문제심각 우리민족 나름대로의 창조성 발휘 시급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의 옷차림으로 알 수 있다고들 한다. 최근 겨울색, 무거운 질감의 옷을 벗어던지고 환하고 밝은 봄으로 같이입는 그야말로 계절에 민감한 사람들. 어떤 옷을 고를까, 어떤 모양의 옷을, 어떤 색상의 옷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 발이 부르드도록 시대를 헤메이는 사람들이 있을테고 아무 옷이나 지나치며 마음에 드는 대로 사입는 사람도 있다.

학내 텔레비전 방송 단일화해야 언론의 대표성·등록금 낭비등 고려

평소에 학교TV를 통해 학내 소식을 전하는 것을 관심있게 지켜본 한 학우다. 지난 화요일 학생회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경희TV의 학내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내용의 TV방송이 같은 장소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았다. 소식은 거의 비슷비슷 했는데 서로 다른 방송국에서 날짜만 틀리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협상에 재단 참석 필요 원전공개로 근본적 발전계획 모색해야

개강과 함께 우리는 등록금이 얼마나 오를까? 이번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 할까?라는 커다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학교측과 학교교수 등록금 협상할 때 학교측은 재단의 부실함을 이야기하면서 인상에 대하여 이해 해 줄것을 요구하고, 그에 맞서 학생측은 재단의 전입금 확충과 국고 보조금 확보를 우리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 한다. 과연 학교측의 주장대로 우리 학교의 재단은 부실한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재단에 대하여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재단 관계자 이외에는 모르고 있다.

표류하는 대학의 조타수

중요한 수업시대이다. 인생이란 어찌 죽을 때까지 수업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학시절이 특히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과연 어느 때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우리 자신만을 살찌우는 데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문을 나서는 순간 현

3월주제 '신입생'

매년 이맘때는 각 대학에 들어온 약간은 어엿한 표정의 신입생들과 이들을 상대로 한 여러 교내 활동으로 캠퍼스내의 활기가 더한다. 우리의 인생까지도 비틀어 버리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12년간의 가혹한 공부와 따라서는 일 이년간의 가슴시린 재수시절과 대학입시라는 큰 관문을 지나온 그들을 보며 우리의 그 시절이 새삼스레 떠올라 묘한 감동이 일곤 한다.



이창순 <사파대 교수·사회학>

각각에게 주어진 인생이면서 그 한 가운데 자신이 크게 자리할 수 있었던 때는 역시 대학시절의 자유롭던 그 때 뿐...

이제는 이들에게 자랑스레 보여 줄 수 있는 대학 본연의 모습이고 문화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신입생들은 이러한 문화에 스스로를 통화시키려 하지 보다는 이러한 문화에 젖어 그것의 이상향을 느끼지 못하는 기성 대학인들의 무신경을 깨우는 역할을 지임해야 한다. 오늘의 대학이 기성 대학인의 자화상이듯이 앞으로의 대학은 바로 이들 신입생들의 자화상이다. 우리 대학이 표류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정정식 <일문·4>

습득 분실자 봉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조용식(국문·90) ▲이미경(영문·91) ▲김종준(사학·82) ▲권경희(철학·87) ▲최승철(화학·87) ▲이승재(법·90) ▲고재경(법·88) ▲김기철(법·90) ▲김성철(법·87) ▲손승호(정의·88) ▲현광찬(정의·90) ▲이종규(정의·85) ▲홍승민(경제·90) ▲조병규(경제·85) ▲문병희(경영·88) ▲신재진(경영·91) ▲황경근(무역·90) ▲정운영(무역·85) ▲강한진(무역·90) ▲문동식(회계·85) ▲신학도(회계·89) ▲최규경(미교·91) ▲이정래(의상·88) ▲도서래(물리·88) ▲노현준(영문·88) ▲현정아(사학·88) ▲김진대(정의·90) ▲이민수(정의·86) ▲이일규(경영·86) ▲박미리(시영·89) ▲전재현(한외·90) [수원캠퍼스] ◆학생증=▲오창석(영문·90) ▲우정아(서반·87) ▲김민정(서반·90) ▲강두식(경영·85) ▲유동선(무역·90)

김형일 <자연대 물리·3>

[수원캠퍼스] ▲선덕·영광교=오는 17일 오후5시반 외대식당 ▲대천교=오는 오후5시 외대 앞 광장 ▲배재·이화교=오는 17일 오후5시반 공대휴게실 ▲호천신입생 환영회=오는 18일 오후5시반 외대식당 ▲여의도교=오는 18일 오후5시 에이원 ▲전남교 신임생활영회=오는 18일 오후5시반 공대휴게실 ▲진수 명신교=오는 17일 오후5시반 공대휴게실 ▲서천항우회=오는 18일 오후5시반 공대잔디밭

동문모임

대이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대전·대전여교=오는 17일 오후5시 공대앞 돌다방 ▲경문·동덕여교=오는 20일 오후5시 체대앞 녹원 ▲전주 덕진교=오는 19일 오후5시 동문앞 ▲광교교=오는 23일 오후5시 체대앞 녹원 ▲동대부교·명성여교=오는 25일 오후5시반 공대휴게실 ▲경희연사회 신입생 환영회=오는 18일 오후5시 동아리

제1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헌상공모.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라! 대학인의 지혜. 남북한 갈등구조의 발전적 해소방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한반도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과 방안 모색, 민족통일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박세민의 여성학보고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남성들이여, 여성을 알라! 여성들이여, 남성들은 결국 이런 여성을 찾고 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

컴퓨터그래픽스만 가르칩니다. '시지 아카데미가 개원한지 1개월 만에 수강생이 150명을 넘었습니다. 열심히 배운 수강생들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2 호주유학박람회 (3.21~3.24) 호주의 48개 학교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국의 '교육 대통령' 부시(Bush)는 지난 1월 2일 호주 국회 의사당에서 호주 교육제도를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